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박영주 필립보 보좌 신 부 강인석 F 하비에르(유초중고등부) 정재준 요한 (청년부) 양정식 마르코 김평안 마르코 (이주사목) 박경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은자 한나 (원장) 최은정 요셉피나 (중고등부) 김미리 에블린 (유·초등부) 최향숙 베로니카 수녀 꿀벌 유치원 김아람 소화데레사 수녀 요셉어린이집 황태영 프란치스코 총회장 김영길 바오로 010-3719-0036 (회장) 연령회
---	--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알림

- 오늘은 돈보스코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 기록을 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식)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9월7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없습니다.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매 끼니마다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한 줌의 쌀을 모아 봉헌합니다. 모은 쌀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2차헌금으로 9월 6일**에 봉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한마음한몸 운동본부를 통해 고통받는 동티모르, 캄보디아, 부룬디, 케냐의 농부와 가족들에게 지원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8월30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9월06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9월13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9월20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9월27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주일 (9/0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4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8월19일 ~ 8월25일)

교무금		5,942,000 원
주일헌금		3,747,000 원
청소년주일 2차헌금		730,000 원
감사헌금	최은미10만원 모경숙8.4만원 김중순3만원 채수풍10만원 황정후 5만원 박주형10만원 한기순 5만원 박갑순10만원 황양임 5만원 임은순 3만원 이계자 5만원 김시아 1만원 나인선 3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8/30	이인옥	최영만 심재순 도현만 김진수	강철등 정연희
9/06	황원선	오성환 김영균 신종구 김진수	최승일 손정주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8/30	박승환	이운영	최창열 최석준 김광수	최창열	최상남	없음
9/06	최승일	박형순	김영배 김인기 박승환	최석준	최창열	없음

주보 7면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314. 사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목자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복음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양들이 길을 잃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을 찾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에게는 사목자에게 귀를 기울여 권고와 훈계와 위로를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가능하다면 날마다 거룩한 성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들에게 성사, 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의 선물을 주고, 위기 상황과 중대한 결정의 시기에 그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사도적 봉사는,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감화를 통하여 신앙의 핵심 집단이 상호 의지하는 관계가 되도록 서로 연결하고 그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심화를 위해서 확실한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교와 사제를 비롯한 모든 사목자들의 참된 사명입니다.

315.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특별한 것을 제안해야 하나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분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의 곤경과 환난 가운데에서 인간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사회 계획, 더 나은 경제 계획, 더 위대한 이상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철학도 다른 종교도 전능하신 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성을 아시고 또 이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외로움을 느끼며, 익명의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SNS와 더불어 인터넷도 인간적인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강점과 약점과 함께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에 의해 완전히 인격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316.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독하게 있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외롭고 오해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인 계획이 세상을 아름답게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환영과 피상적인 만족의 삶으로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가정 교회, 기도 모임, 소 공동체, 성경 모임, 영성 모임, 연구 모임 등이 그것입니다. 소수로 구성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애를 다지며 함께 신앙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며, 함께 성경 연구 모임을 꾸려 갈 수 있고, 함께 교회의 가르침을 익히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아직 없는 곳에서는, 첫 구성원이 둘이나 셋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모임이나 단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는 정기적으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는 본당 공동체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317. 우리는 사회 참여를 위한 나침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께 조언을 청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경 외에도 가톨릭 교회는 거룩한 전통, 곧 성령의 불에 의해 지속되는 교회의 신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2천여 년 동안 성장하고 심화된 신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과 필요한 모습에 관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인식을 레오 13세 교황 이후부터 반포된 사회 회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회칙은 《간추린 사회 교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리서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출간된 《YOUCAT》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 교리가 청년들 사이에 폭넓게 확산되도록 만들어진 《DOCAT》도 있습니다.